

보도시점 2023. 8. 2.(수) 낮12시 배포 2023. 8. 2.(수) 08:30

‘특허행정 한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

- 특허청, '99년 세계 최초로 시행...지난해 전자출원 비율 98.8% -
- 개발도상국 대상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수출...행정한류 주도 -
- 인공지능 활용 첨단서비스 제공 등 혁신행정 지속 추진 -

아랍에미리트(UAE) 등 해외에 수출돼 지식재산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특허청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99년부터 개시*됐고, 주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기에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혔다.

* 미국·유럽연합 '00년, 일본 '05년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성, 행정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혁신성과가 널리 확산 되도록 올해부터 전 행정기관(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공모해 홍보해왔다. 지난 4월 1차 사례 발표에 이어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 및 주요 성과>

특허청은 '92년 ‘특허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허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기획을 추진하여 '99년 1월 온라인 특허행정 체계(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출원부터 심사, 등록, 심판까지 전 과정이 전산화되어 국민은 번거로움을 덜고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의 등장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시켰고, 이러한 편리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자출원 비율이 98.8%에 이르는 등 출원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심사기간 약 40% 단축 : 37개월 ('96년) → 21.3개월 ('01년), 출원인 부담 비용 감소: 32만 원(서류 100장 기준, '96년) → 10만 원 수준 ('01년)

특허넷 개통 이후에도 국민편의 극대화를 위해 특허청은 2005년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세계 최초 국제특허출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6년 대국민 전자출원 기반(플랫폼) ‘특허로’ 출범*, 2020년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모바일)을 활용한 출원서비스 개통 등 체계(시스템)를 지속 업그레이드 해왔다.

* 특허넷 체계(시스템) 가운데 대국민 전자출원 기반(플랫폼)을 ‘특허로’ 로 명명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해외 수출 성과>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상 정보화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공적원조의 형태나 해당국 예산 지원을 받아 특허행정 체계(시스템)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세계 최초로 시도하고 지속 발전 시켜온 특허행정 체계(시스템)가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인정받았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 첨단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를 계속 높여가도록 다방면의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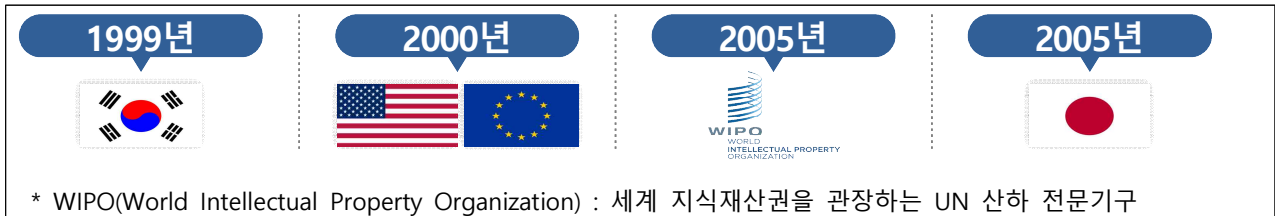
한편, 최초·최고 사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의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innovati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시스템 현황 및 성과

특허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진환	(042-481-5051)
		담당자	사무관	조현주	(042-481-5896)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책임자	과 장	최일승	(042-481-5099)
		담당자	사무관	김상윤	(042-481-5177)



□ 각국의 인터넷 전자출원 개시 비교 : 미국·EU('00년), WIPO*·일본('05년)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세계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시스템 개통 성과('99년 특허넷 개통 2년 후인 2001년 기준)

- ◆ 심사기간 약 40% 단축 : 37개월 (1996년) → 21.3개월 (2001년)
- ◆ 출원인 부담 비용 감소: 32만 원(서류 100장 기준, 1996년) → 10만 원 수준 (2001년)
- ◆ 인터넷 민원처리에 따른 연간 2,000억원 비용절감 효과 발생
 - ※ 2001년 전체 출원 중 81.4%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민원인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시간낭비 등 해소
- ◆ 행정비용 대폭 감소로 연간 300억원 절감효과 평가
 - ※ 특허기술자료 발간이나 우편발송비, 종이문서 보관 및 관리비 등 행정비용

□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넷)의 혁신 History

- 1999.01.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 '특허넷' 오픈
- 2001.07. 기존 CD-ROM 공보를 인터넷 공보로 전환
- 2005.01. 특허넷 시스템 II 개통 및 24시간 365일 non-stop 전자출원, 세계 최초 온라인 국제특허출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 2006.09. 전자출원을 위한 대국민 플랫폼의 브랜드를 '특허로' 로 명명
- 2007.11. 웹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통
- 2009.01.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 원격화상시스템 도입·운영
- 2010.01. 세계 최초로 3D 디자인 출원시스템 구축
- 2020.03.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상표 출원서비스 도입

□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현황

연도	전자출원(건)	서면출원(건)	전자출원 비율
2000	213,837	57,463	78.8%
2010	334,403	15,538	95.6%
2020	532,368	9,661	98.2%
2022	531,967	6,451	98.8%